

환경 네트워크

중국, 대운하 청소 위해 쓰레기봉투 배부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긴 운하로 2,500년 전에 건설된 베이징-항저우 대운하(Beijing-Hangzhou Grand Canal)를 운항하는 선박에 20,000개에 달하는 쓰레기통과 쓰레기봉투 100만 개가 배부됐다.

중국 동부 지양성(Jiangsu Province)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쓰레기봉투와 통은 운하의 남쪽지역 400km에 걸쳐 150,000대의 선박이 청소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된다.

운하를 항해하는 선박들에는 매일 200,000만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쓰레기 101톤, 폐오일 5,373킬로그램을 발생한다. 쓰레기는 2006년에 건설된 폐기물처리센터로 이송된다. 센터 건설에는 2,800만 위안(미화 360만 달러)가 소요됐다. 이에 더해 17곳의 폐기물수집장과 43곳의 폐석유재활용공장이 이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한편 중국 동부 제지양성(Zhejiang Province) 성도인 항저우(Hangzhou)는 도시가 지나가는 운하 남단 18.1km를 오염을 막기 위해 40억 위안(미화 5억 1,800만 달러)를 투자했다.

항저우와 베이징을 잇는 연장 1,794킬로미터의 대운하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운하다. 기원전 5세기부터 남북을 잇는 동맥이었으며, 13세기에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완성됐다.

덴마크와 국제사회, 환경등록 초점

덴마크가 공공 오염물질배출데이터(Public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

Public PRTR) 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PRTR를 더 발전시키고 경험을 교환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문가들의 PRTR 코펜하겐 회의에 이어 개발된 것이다.

지금까지 덴마크 기업들은 환경정보를 그린보고서에 공개, 발간해 왔다. 새로운 등록제도에 따르면 기업들은 이제 매년 대기, 물, 토양 중에 대한 배출, 방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폐기물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정보는 덴마크 환경보호청 웹사이트나 EU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al Agency : EEA)의 EU 등록부에서 볼 수 있다.

풍력 배, 태양열 비행기 뜬다

바다를 누비며 화물을 수송하고 있는 배가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원동력은 바람이다. 비용이 들지 않는 이 바람의 힘으로 앞으로는 화물수송배들이 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스카이 세일(Skysail)의 진취적인 기업이 풍력으로 움직이는 동력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장 혁신적인 기술상 2007' 을 획득했다.

스카이 시스템에 의하면 바람의 상태에 따라서 바다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송배들이 평균적으로 약 10%에서 35%까지 연료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바람의 조건이 아주 좋으면 배의 연료 50%까지도 절약된다는 것이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계산하면 87m의 배가 연간 약 280,000유로(3억3천만원)의 연료비용을 감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반면 물론 태양열분야에서도 한층 더 박차를 가하여 비행기를 날아가게 할 단계에까지



발달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 케른텐 도시의 한 비행기기술자가 발전시킨 모델이 올해안에 실제적인 태양열 비행기로 생산되어 보여질 예정이다. 이 비행기 기술자는 기업 그리고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연구하여 모델을 발전시킨 성공적인 작품이다.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서 생산된다는 이념으로 진척된 이 비행기는 큰 날개부분에 태양열 흡수물질을 칠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어내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이 비행기가 현실화된다면 안정성, 저음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면에서 현재의 비행기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장점을 보유할 것이라고 한다.

이 프로젝트는 2007년을 기점으로 일반 그리고 군 비행기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에 한 획을 그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EPA, “회의도 녹색화”

미 EPA가 녹색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냈다. 이제 EPA는 회의를 녹색화하려고 한다. 청은 조달규칙을 개정,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자원을 적게 사용하는 업체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동 규칙은 지난 5월 1일 발효됐다.

이제 EPA는 회의 및 컨퍼런스 장소를 구할 때, 가격 및 과거 퍼포먼스와 같은 전통적 결정요인 외에 환경성과를 고려하게 된다. 이 규제를 통해 호텔이나 컨퍼런스 센터를 녹색화하겠다는 것이다.

EPA의 스티븐 존슨(Stephen L. Johnson) 행정관은 “우리나라에 ‘녹색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이에 EPA는 모든 기업들이 공동의 환경 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도록 하는 데 책임을 져야 합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녹색회의를 가능케 함으로써 우리청은 정부와 거래하는 업체들이 환경편익 및 재무편익을 늘리면서 그린화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고 역설했다.

본 프로그램은 연방정부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참고로 연방정부는 여행 등 회의비용으로 140억 달러를 매년 사용한다. 그 중 대부분은 호텔을 비롯한 회의장소를 빌리는 대여료로 쓰인다. EPA 단독으로만 매년 회의비용으로 5000만 달러를 쓴다. EPA는 본 규제를 청 내에만 아니라 연방정부 전 부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미 환경보호청, 대기질 새 버전 발표

미국 시민들이 전국 각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혹은 거주를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EPA가 지역 대기질틀인 대기비교 ‘에어컴페어(AirCompare)’를 내놨다.

미국 EPA 대기방사능실 관계자는 “미국인들이 은퇴를 준비하거나 직장을 바꾸려고 할 때 점점 더 대기상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고 말하고 “에어컴페어는 이러한 의문이 있을 때 알기 쉬운 방법으로 답변을 줍니다”고 덧붙였다.

에어컴페어는 EPA의 대기질지표(AQI)를 사용해 건강 측면에서 대기질을 설명해준다.

예를 들어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에어컴페어를 통해 전국에서 최고 10개 군을 선정해 작년 이 지역들에서 얼마나 많은 일수 동안 대기가 천



